

인도 스와데시 운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조 길 태

스와데시 운동은 그 성격상 영국상품을 배척하는 보이코트 운동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스와데시가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보이코트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두 운동은 상호보완적이었으며 외국 상품에 대한 배척없이는 自國商品의 애용운동은 효과적일 수 없었다. 스와데시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은 오직 행정적 능률만을 강조한 커어즌(Lord Curzon)총독의 뱅골주 분할조치에 대한 항거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國民會議를 중심으로 한 인도 국민지도자들은 뱅골주에 분할이 결국 동질적인 뱅골 주민을 힌두와 모슬렘으로 분리 대립시킴으로써 민족주의 세력의 약화를 도모하려는 분리통치의 제국주의적 책략이라고 비난하였다. 각계각층이 카스트와 교의에 구별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공동으로 저항하였다. 스와데시·보이코트 운동이 주요 목표로 삼았던 것이 품질 좋은 만체스터 수입 면직물이었지만 뱅골 지방의 上位카스트에 속한 교육받은 중간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바드리록 계급이 이 애국운동에 적극적으로 다수 참여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스와데시 운동은 인도민족주의운동 내지 독립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국민대중의 마음속에 민족의식의 씨앗을 심어준 사건이 스와데시 운동이었다. 스와데시 운동을 계기로 조용한 국민회의 활동이 하나의 거대한 민족주의운동으로 변모하였다. 국민회의가 교육받은 중간계급을 공동의 광장으로 이끌어 냈다면, 일반대중을 공동의 광장에서 규합했던 것은 스와데시 운동이었다. 따라서 스와데시 운동은 간디의 汎國民의인 대규모 사티야그라하 운동의豫行演習과 같은 것이었다.

I. 머리말

스와데시(Swadeshi)의 어의는 ‘자신의 나라의’, ‘자기나라에서 만든’ 등의 뜻으로서 이 말은 자신들이 만든 토산품이 인도국민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스와데시 운동은 자국과 외국사이의 교역을 완전히 단절해버리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이 운동은 분명히 자국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 외국제품의 사용을 조직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을 도모하였다. 보호무역조치는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스와데시 운동은 결국 또다른 형태의 보호무역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인도인들은 제국주의 지배아래서 보호관세 등의 방법을 통하

* 이 논문은 1994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지역연구)에 의해 작성되었음.

여 토착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권리는 빼앗겨 왔지만 스와데시 운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는 자국의 산업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도인들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물론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만큼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는 위력적인 애국심이 편승한 민족감정이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스와데시 운동에서 강조하는 민족산업은 오직 이윤추구에만 급급하는 따위의 토착기업과는 거리가 있었다. 스와데시 운동은 경제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애국적 의무감과 결부되어 있었으므로 여러 양상의 인도민족주의운동과 밀접하게 연합할 수밖에 없었다.

스와데시 운동이 강조될 때 그 성격상 외국제품 즉 영국상품을 배척하는 보이코트 (Boycott)운동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보이코트 운동이 인도에서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스와데시와는 달리 보이코트의 語義와 그 운동의 발단으로 보아 외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원래는 스와데시 운동과 보이코트 운동이 別個운동으로 생겨났지만 보통 스와데시 운동이 보이코트 운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보이코트도 경제적 의미가 강하지만 스와데시보다 훨씬 적극적인 표현이다. 보이코트 정신은 공격적이며 적대적이고 보복의 정신과 상통하는 것이었다.

보이코트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의도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었다. 첫째는 인도에서 영국상품 특히 만체스터 면직물의 가장 큰 상품시장으로 되어 있는 뱅골 지방에서 이를 배척하여 만체스터 직물업자들에게 타격을 가함으로써 영국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산업혁명을 경험한 유럽국가들과 자유경쟁 아래서는 도저히 성장할 수 없는 단계에서 인도의 토착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인도에서 보이코트 운동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인도 민족주의자들이 강조했던 두 개의 제안 즉 외국제품을 사는 것을 거부하는 보이코트 운동과 자국의 산업을 장려하는 스와데시 운동은 不可分의 것으로 한데 묶어질 수밖에 없었다. 스와데시는 가능한한 자국의 많은 상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건설적 운동이었으며, 보이코트는 공격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용어이면서도 스와데시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제품의 구매를 삼가하는 것 즉, 보이코트와 연결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두 운동이 단순히 같은 돌(동전)의 양면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스와데시 운동이 같은 이론의 긍정적인 양상이라면 보이코트 운동은 부정적인 면이었다. 그러면서도 두 운동은 相互補完的일 수밖에 없었다. 스와데시는 외국상품에 대한 보이코트 없이는 무기력한 이념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II. 스와데시 운동의 뻥아

스와데시 운동은 유독 인도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국민운동이 아니라 유사한 경제적 정치적 형편에 처해 있는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애국운동이었다. 인도의 스와데시 운동도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인도의 재화유출에 따른 빈곤의 확산을 막고 자국의 전통적인 혹은 근대적인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스와데시 이념의 역사는 인도 민족의식의 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서구식 교육이 이른바 영어교육을 받은 중간계급으로 하여금 번영해 가는 산업화된 서구와 가난에 시달리는 기아선상의 인도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을 강렬하게 느끼도록 만들었으며 이 비극적인 빈부의 차이는 단순한 운명의 선고가 아니라 영국의 치밀한 제국주의 정책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아마도 인도에서 처음으로 스와데시 이념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인물은 뿐나(Poona) 지방의 데스무크(Gopalrao Deshmukh)로서 그는 이미 1849년에 지방신문의 논설을 통하여 수입품 대신에 인도 생산품을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뱅골 지방에서의 첫 스와데시 운동은 미트라(Nabagopal Mitra)의 노력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는 1867년에 힌두협회(Hindu Mela)를 조직하고 14년동안 정기적인 집회를 가졌다. 힌두협회의 주요 기능의 하나가 공예 미술품의 전시회를 조직화함으로써 인도제품의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이었다. 라나데(M.G. Ranade)는 일련의 대중강연을 통하여 뿐나 시민에게 외국제품에 비하여 불만족스럽더라도 조국에서 생산된 토산품을 애용하도록 호소하였으며, 그의 제자 조시(G.V. Joshi)는 토산품을 선전하고 보급시키기 위해 몇 개의 스와데시 상점을 개설하고 자신의 옷감을 스스로 짜입기도 하였다. 조시는 화려한 빅토리아 영국여왕의 인도국왕 즉위식(Delhi Durbar) 식전에 스스로 짜입은 인도의 전통의상(Khadi)을 입고 참석하기도 하였다(Chandra, 1989: 123). 스와데시 상품의 애용을 외치는 목소리는 나그뿌르(Nagpur)와 방갈로어(Bangalore) 등지에서도 나타났었다.

아직 스와데시를 통한 自助의 노력이 일반의 관심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이념을 가장 열렬하게 외친 인물은 뱅골 지방의 찬드라(Bholonath Chandra)였다. 그는 깊어만 가는 인도의 빈곤을 퇴치하는 구제책은 토착산업을 장려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ukherji's Magazine」을 통하여 1873-76년간에 걸쳐 그는 “인도의 상업과 제조업을 위한 제언”이란 장문의 글에서 인도국민에게 외국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조그마한 애국심’을 표현하도록 호소하였다. 그는 ‘조국에 대하여 가장 불성실한 사람들, 또 국산품의 사용에서 이반되어 가는 대다수의 선동가들이 토후, 자민다르(Zamindars), 서구화된 인도인 紳士 및 상층 도시민들이라고’ 지적하고, 외제품을 선호하는 데는 ‘값싼 것과 좋은 것에 대한 욕망보다는 아첨과 바보스

러움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비난하였다. 찬드라는 토착산업의 잃어버린 기반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신적 전쟁행위'의 무기로서 외제품에 대한 배척 즉 '만체스터 면직물의 王'을 퇴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제 범했던 어리석음은 오늘의 지혜로 대체할 수 있다. 어떤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불충을 드러내지 않고, 법을 만드는 어떤 구원자에 구걸하지도 않고 우리의 잃어버린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 안에 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아 있는 유일한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도덕적 전쟁무기를 드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없다. 영국상품을 소비하지 않기로 결의함으로써 이 위력적인 무기를 사용하자"(Chandra, 1989: 126)

스와데시 이념의 물결은 1880년대 초부터 더욱 활발하게 일어났다. 총독정부의 관세정책이 커다란 자극을 주었는데 정부가 만체스터 직물업자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면직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였기 때문이었다. 토착산업의 파괴와 영국 기계제품의 사용에 반대하는 대중가요가 인도서부 주민들 사이에 널리 전파되어 갔다. 특히 19세기 인도의 대표적인 민족지의 하나인 「Amrita Bazar Patrika」는 만체스터의 도전에 대항하기 위하여 팜프렛을 배포하기 위해 인도 각지의 언어로 번역하고, 대표들을 인도의 모든 주요 도시에 파견하도록 촉구하였다. 외국제품을 다루는 무역업자들을 카스트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뱅골분할로 야기된 본격적인 스와데시 운동을 20여 년이나 앞서 제시된 적극적인 스와데시 정신의 표현이었다.

인도의 토착산업이 19세기에 걸쳐 크게 쇠퇴하게 된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拙著, 1994: 349-352, 461-483), 세기말에 접어들면 민족주의 진영뿐만 아니라 정부당국도 다같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예컨대 1890년의 통계는 목제공예, 돛자리, 유기 및 도자기 부문을 제외한 전반적인 뱅골지방의 수공업은 몰락하고 있었으며, 또한 뱅골 직조공업과 여기에 의존하는 수공업자의 수효가 1891년에서 1901년 사이에 5%나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Sarkar, 1994: 92-93). 이와같은 인도의 전통적인 수공업의 쇠퇴가 의심할 것도 없이 토착산업을 회생시키려는 스와데시 운동을 자극하고 장려하였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도의 경제적 민족주의자들의 견해로는 스와데시·보이코트 운동은 원료공급지와 상품시장으로서의 전형적인 식민지인 인도가 안고 있는 모든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의 약이었다. 보이코트와 스와데시는 서로 상대방을 고무시키며, 전자의 행동은 후자를 위한 '확실한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로 장인과 기업가와 스와데시 상인이 돈을 벌게 되면 이는 스와데시 회사의 상인과 투자자들의 수중에 더 많

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더 많은 자본이 스와데시 상품을 만드는 데 투자하게 된다. 한편 영국 상인들이 점점 더 많은 양의 곡물과 수출을 위한 원료를 구입함으로써 인도에서 물가는 어쩔 수 없이 상승하고 간헐적인 기근을 초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해결책은 보이코트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구매를 위한 돈도 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의 판매에서 나올 것이므로 보이코트 운동은 인도로부터의 재화유출을 촉진하고 있는 구조를 원활치 못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스와데시 이념은 1896년에 가면 정치적 의식을 갖춘 인도인들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는데 그것은 총독정부가 인도 면직물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나타난 반발이었다. 정부는 영국 면직물에 대해 다시 수입세를 적용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인도 면직물에 대해서도 상응하여 소비세를 부과한 것이었다. 총독정부는 인도국민 특히 면직물업자들의 반발 때문에 영국 면직물에 대하여 철폐했던 수입세를 1894년에 다시 5%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영국 직물업자들의 강한 발언권으로 영국정부는 이들에게 5%의 수출장려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아메드나가르(Ahmednagar)에서는 영국제품을 배척하기 위한 지방연맹이 시내 여러 곳에서 회합을 가졌으며 팜프렛을 준비하여 시민에게 살포하였다. 영국 면직물을 배척한다는 시민의 결의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영국의 옷감을 불태웠다. 이미 수년 전에 스와데시 상점을 열기도 했던 뿐나의 학생들도 외국제품의 옷감을 공개적으로 불태우는 의식을 행하였다. 이러한 보이코트 운동에서는 국민회의에서 과격파 지도자로 浮上하고 있는 티일락(B. G. Tilak)이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티일락은 자신의 「*Mahratta*」 신문을 통하여 ‘이 운동은 애국적 감정을 창조하기 위해 계산된 것이며 이는 우리의 면직물에 대한 광범한 수요를 불러일으켜 인도의 면직물 공업의 발전에 예민한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Chandra, 1989: 133). 한 달후 이 신문은 그러한 기대가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스와데시 운동의 결과 봄베이州에 13개의 새로운 공장이 생겨났고, 봄베이市에 7개, 아메다바드(Ahmedabad)에 6개의 공장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면직공장을 위하여 보다 좋은 품질의 목화를 재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Chandra:133).

벵골 지방에서는 임시로 가끔 개설되는 것과는 달리 상설 스와데시 상점이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1891년으로서 무커지(Nilambar Mukherji), 차터지(Bireswar Chaterji) 및 사르카르(Akshoychandra Sarkar) 등이 시작하였으며 약 일년동안 존속하였다. 1897년에는 시인 라빈德拉나트 태戈르(Rabindranath Tagore)가 역시 캘커타에 스와데시 상점을 개설하였으며, 수 년후에는 그의 여조카 고샬(Sarala Ghoshal)이 다시 상점을 열었다(Sarkar, 1994: 116).

스와데시 이념은 아직 경제적 고려에 주로 근거하였을 뿐이었다. 스와데시 운동은

인도 토착산업의 취약하고 통탄할만한 현실을 국민의 자발적인 보호 노력에 의해 회생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뱅골 지방에서 스와데시 이념을 전파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계속해왔던 미트라(K.K. Mitra)나 국민회의 온건파의 지도자인 슈렌드라나드 바너지(Surendranath Banerjea)도 계속하여 스와데시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산업상의 이익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도의 장인들이 외국경쟁자들의 수중에서 몰락해 가는 것을 구하기 위해 스와데시 운동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수없이 강조되었다.

산업화에 따른 고용창출의 잠재력이 스와데시 선전의 주요한 논지였다. 교육받은 사람들의 실업이 자주 거론되었는데 뱅골인들은 잘못된 교육제도가 공업발전을 고려하지 않으므로써 법률가 등의 전문직과 서비스 분야에는 심각할 정도로 과다인력을 배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느끼게 되었다. 인도 경제학자 가운데는 빈곤문제의 해결책을 대규모 공장공업의 발전에서 찾으려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제적 민족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수공업을 권장하여 후일 마하트마 간디의 주장을 연상케하는 수직기(베틀)와 물레의 대량 사용을 강조하였다. 급진주의자로 활동하기도 하였던 드ус카르(Sakharam Ganesh Deuskar)는 ‘랑커셔 면직물의 연간 수입량인 21억 6천만 야드를 인도제품의 면직물로 대체하는 데는 적어도 3억 루피의 자본투자가 요구되지만, 단 2천만 루피만 지출하면 70만 개의 북(飛梭)으로 개량된 베틀을 설치하여 12억 6천 야드의 직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계산하였다(Deuskar, 1967: 205-206).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줄 것이며 전통적으로 이어 내려온 베짜는 사람들을 영국직물의 거센 도전앞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간디의 주장과 관련하여 생각한다면 촌락의 여성들,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에게도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인도의 교육받은 지식인들도 산업발전보다는 대규모 공업이 발전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서구가 안고 있는 사회적 악폐 즉 빈부의 격차, 계급의 반목, 도덕의 파괴 등이 인도에 나쁜 영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계는 오직 부유한 사람에게만 이익을 안겨주고 일반 서민에게는 고통을 증대시킬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수공업은 모든 사람에게 생계를 보장해 주고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유지시켜 준다고 믿었다.

인도 민족주의자들이 스와데시 운동을 가장 설득력있게 강조했던 주장은 총독정부가 영국제조업자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자유무역을 강조함으로써 인도의 연약한 토착산업에 대하여 절실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국민은 스스로 열정적인 스와데시 운동을 통하여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착산업의 성패는 외국정부의 변덕이나 생색 또는 법개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국민의 자구노력과 자기신뢰에 달려있다는 신념에서 스와데시 운동을 추진하였다. 스와데시·보이코트 운

동은 인도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영국 제조업자들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저항과 보복의 무기로 생각되었는데 그것은 영국제조업자들이 영국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인도의 면직물 공업을 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인도 민족주의자들이 외국 상품을 인도제품으로 대체시키려는 노력은 궁극적으로 외국상품의 수입에 따른 인도 재화의 유출을 감축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말할 것도 없다.

인도 민족주의자들은 스와데시 운동을 아직 정치적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효과적인 무기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스와데시 운동을 인도인에게 남겨진 유일한 방어무기로 생각했을 뿐이었다. 스와데시 운동은 민족의식에 투철한 교육받은 중간계급에게는 상당한 세력기반을 확대하였지만 영향력있는 민족지도자와 인도 공장주들이 모두 지지를 보냈던 것은 아니었다. 스와데시 운동이 아직 인도국민회의의 공식적인 인정을 얻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게 한다.

스와데시 운동은 아직 일부 민족지도층과 신흥 인도인 산업자본가들의 반대로 전인 도적인 열렬한 국민운동은 되지 못하였다. 그들의 주장으로는 스와데시 운동이 ‘경제적으로 잘못된 생각’에 전적으로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국민은 값싸고 질좋은 수입옷감의 사용을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을 것이므로 단순한 애국심에 호소하려는 것으로는 성공의 가능성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옷감의 수량을 인도 공장에서는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인도기업가들은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계도 없고 기계를 살 수 있는 자금도 갖지 못하고 있었다. 보이코트 운동은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수입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또 공장설비는 한두 해 혹은 5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국민회의 온건파 지도자인 한사람이었던 와차(D.E. Wacha)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필수적인 공장 설비를 갖추는 데도 20년은 소요된다고 주장하였다(Chandra, 1989: 138).

와차가 주장하는 배후의 논리는 인도의 공장 생산능력이 선행되어야지 스와데시 운동이 앞서 나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와차와 그리고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관심은 인도의 모든 형태의 옷감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들이 생산하고 또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공장제품의 옷감에 있었던 것이다. 스와데시 운동이 그들에게는 영국 면직물 대신에 인도인의 공장제품을 선전하는 수단으로만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III. 벵골주 분할정책

스와데시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은 총독정부의 벵골주 분할조치에 대한 항거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19세기 벵골은 인도에서 규모와 인구면에서 가장 큰 주로서 다섯개의

지역 즉 뱅골본주(Bengal Proper), 비하르(Bihar), 초타 나그뿌르(Chota Nagpur), 오리سا(Orissa) 및 아쌈(Assam)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구성은 대체로 무갈제국으로부터 이어져 왔으며 플라سي(Plassey)전쟁(1757)에서 뱅골 토후세력이 패배하자 영국동인도회사가 이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하였고 아쌈 지역은 1826년에 버어마로부터 넘겨받았다. 1774년 총독정치가 시작될 때부터 英領印度의 수도인 캘커타가 자리 잡고 있는 뱅골주의 지사직은 총독이 갖고 있다가 1854년에 부지사를 임명함으로써 뱅골주는 총독의 직접통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광대한 뱅골주를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시되었다. 1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1868년의 뱅골 대기근 때 한 사람의 부지사가 너무나도 방대한 뱅골주를 제대로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총독정부에 보고하였다. 당시 뱅골부지사인 그레이(William Grey)뿐만 아니라 후임자인 캠벨(George Campbell)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행정적 편의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뱅골주에서 아쌈을 분리하였지만 (1874) 뱅골은 역시 영령인도에서 가장 크고 많은 인구를 포함한 주로 남아 있었다. 뱅골주는 48개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면적은 약 19만 평방마일에, 주민은 7천 8백만 명이 넘었다.

뱅골주는 아직도 「다스릴 수 없을 만큼」의 규모였으므로 1891년에 뱅골 부지사를 비롯한 아쌈과 버어마의 수석행정관이 참석하여 뱅골주의 제편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논의하였다. 1896년에도 뱅골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여 치따공(Chittagong), 다카(Dacca) 및 마이멘싱(Mymensing)지역을 아쌈에 넘기는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커어즌(George Nathaniel Curzon; 1899-1905)總督이 부임한 이후로는 1901년 초에 처음으로 C.P.(Central Provinces)의 지방행정관 프레이저(Andrew Fraser)가 뱅골분할을 제의했는데 그의 주장은 의외로 뱅골에서 오리사(Orissa)를 분리하여 C.P.에 편입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논의는 秘書局수준에서 진행되었을 뿐 총독은 뱅골분할에 대한 논의과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커어周恩 1902년에 경찰위원회를 임명하여 개혁을 모색하였는데 이것이 뱅골 분할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위원회는 경찰력을 증강되어야 한다는 것, 지역관리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 전체적으로 경찰행정은 관리의 통제아래 둘으로써 관리가 궁극적으로 경찰의 감시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 등을 제의하였다. 이 이념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관료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총독은 뱅골 동부지역이 오랫동안 철저히 무시되었고, 광범하지만 인구는 적은 이 가난한 모슬렘 농촌지역에 치안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찰력이 요구된다고 믿게 되었다. 여기에서 총독은 행정관리를 증가시키는 것과 효과적인 통제의 강

화를 위해서는 이 지역을 분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심하게 되었다(Misra, 1985: 394-395).

총독은 처음으로 1902년 4월에 본국의 해밀턴(George Hamilton)印度相에게 보낸 서한에서 ‘벵골은 의심할 여지없이 한 사람이 책임을 맡기에는 너무나 방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총독의 견해로는 ‘현재의 뱅골, 아쌈, C.P. 마드拉斯의 경계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논리적이고 비능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규정하고 ‘주들의 경계를 다음 세대를 위해 조정하려는 것이’ 자신의 주장이라고 밝혔다(Mukherjee, 1986: 5-6). 뱅골 부지사가 된 앤드류 프레이저가 포괄적 분리계획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앞서 1896년에 논의했던 바의 내용이었다. 1903년 초에 제시된 이 계획안이 ‘뱅골분할의 실제적인 시작’이었으며 반 년쯤 지나 총독이 이 계획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총독정부는 본국의 인도상과 지방정부에 통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총독정부의 비서관 리슬리(H.H.Risley)에 의해 1903년 12월 3일에 발표된 이른바 리슬리 서한에 따르면 뱅골은 C.P.에서 삼발뿌르(Sambalpur)와, 마드拉斯에서 간자(Ganjam)지역 등 네 곳과 주민 4,469,635명을 편입하지만 치따공, 다카 및 마이멘싱을 아쌈에게, 또 초따 나그뿌르를 C.P.에게 주민 15,462,561명과 함께 넘겨주게 되었다. 결국 뱅골은 10,992,926명을 얇게 되어 현재의 주민 78,493,410명이 분리 후에는 67,500,484명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한편 아쌈은 현재는 주민 6,126,343명에 불과하지만 뱅골로부터 11,475,646명을 넘겨받아 분리 후에는 17,601,989명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뱅골 분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측의 입장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뱅골 부지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주어 행정능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었다. ‘뱅골에서는 부지사가 여행 가능한 계절 내내 순시여행을 하더라도 임기동안에 광대한 뱅골주의 겨우 일부만 방문할 수 있을 뿐이었다’(Fraser, 1961: 369-371). 방대한 뱅골주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부지사에게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철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캘커타와 동벵골의 중심지인 다카까지는 264마일의 거리인데도 24시간이나 소요되었다(Ghosh, 1985: 104). 따라서 그는 수도 캘커타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주민들과는 직접 접촉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이는 주민들의 불만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는 캘커타의 지배자로부터 동부지역을 해방시키겠다는 정부의 희망때문이었다. 캘커타는 영령인도와 뱅골주의 수도이며 상업적 문화적 중심지로서 정부의 에너지와 관심과 지원의 많은 부분을 흡수해버림으로써 원격지를 등한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다. 정부의 캘커타에 대한 편애때문에 멀리 떨어진 동벵골 주민들은 서자취급 당하고 있다고 느껴왔으며, 한 예로 6천 평방마일과 4백만 주민을 갖고 있는 마이

멘싱 지역은 단 한 사람의 유럽인 관리가 책임을 맡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균형적인 협력과 발전을 위해 뱅골분할은 절실한 것이었다.

셋째로 정부가 주장한 바는 모슬렘에 대한 배려에 있었다. 대폭동 이후 좌절감에 빠져있던 모슬렘의 사이에드 아메드 칸(Syed Ahmed Khan)의 지도 아래 영국정부에 대해 화해와 협조의 태도를 보여오고 있었다. 총독정부는 그 후 모슬렘을 달래는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모슬렘 분리정책에서 힌두에 의해 대표되는 인도 민족주의의 파고를 잠재우는 효과적인 억제책을 찾았다. 뱅골분할 입안자들은 동벵골에서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모슬렘의 교육과 문화면에서 힌두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부에서 주요한 직책의 대부분이 힌두에 의해 점유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대영제국의 신민으로서의 모슬렘에게 당연히 누려야 할 보호와 특혜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분리된 새로운 주가 동벵골에 창설되면 모슬렘은 지금까지 누려온 것보다 훨씬 후한 대접을 받을 것이며 더 많은 일자리와 모든 면에서의 더 큰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넷째는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바다에로의 출구가 아쌈에는 없다는 것이 분리의 필요성의 이유였다. 동벵골과 아쌈이 합해져서 새로운 주로 출현한다면 치파공이 바다로 통할 수 있는 적절한 출구가 될 수 있었다.

벵골분할에 대한 계획안이 발표되자 소수만이 이를 ‘수백만 명에게 이익을 안겨줄 칭송할만한 움직임’이라는 반응을 보였을 뿐 압도적인 다수 특히 교육받은 계층은 ‘벵골 민족주의의 견고한 단결에 대한 교묘한 一擊’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Mukherjee, 1986: 16). 뱅골에는 서구식 교육이 가장 광범하게 보급되었으며 정치적 상황에 민감한 관심을 보이고 있던 지식층이 인도에서 최대 규모의 집단을 이루고 있어 인도 민족주의운동의 前衛를 형성하고 있었다. 뱅골은 정치적 저항운동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은 정치적 변화에 따른 단순한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도에서 가장 앞서있는 지역으로서의 자신있는 지도력과 장래에 대한 적극적인 희망 속에서 발로했던 것이다.

20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뱅골은 간헐적인 재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장 동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경제적 배경은 다른 곳보다 뱅골이 훨씬 유리하였다. 영구정책(1793)의 도입으로 자민다르가 농민에게 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었지만 그 후 1859년의 임대법과 1885년의 임대법에 의해 지주가 요구하는 소작인으로부터의 지대요구액이 제한됨으로써 농민을 위한 보호장치가 크게 확보되었다. 세 개의 법은 뱅골에게 도움을 주었다. 당시 뱅골에는 ‘교육받고 영향력 있는 지주계급이 있었는데 그들은 영국지배에 협조하고 善政의 대의에 대해서는 충성적인 협조를 주어왔다. 또 교육 지식 중간계급이 있었는데

지주 아래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진보적 사회집단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分子)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유한 농민이 있어서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반발과 흉작을 어느정도 이겨낼 수 있었다. 지대는 상대적으로 가벼웠고 경작자들은 대금업자들의 예속하에 있지 않았다. 영국인 행정기들은 당연한 자부심을 가지고 뱅골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뱅골은 그들의 온전한 정책이 인도에 농업의 번영을 확보해준 표본이라고 생각하였다'(Dutt, 1967: 460-462). 뱅골지방의 상대적으로 부유한 농민과 정치적 자각의식이 강한 부르조아지의 높은 성장이 이 지역을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우월하게 만들었다. 교육, 문화, 경제면에 있어서의 뱅골의 주도적 위치가 자연히 민족주의 운동의 最前面에 나서도록 만들었으며 그 지도자들이 급진주의사상을 도입하고 있었다.

뱅골분할정책에는 총독정부에서 애써 강조하고 있는 바의 행정적 능률이 고려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커어즌 총독은 ‘능률이론의 열렬한 신봉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그는 ‘능률이야말로 우리의 신조이며 또한 우리 행정의 基調’(Ghosh, 1985: 96)라고 거침없이 주장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영국정부의 뱅골분할정책에는 단순한 행정적 능률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민족주의 세력의 약화 내지 힌두·모슬렘의 대립을 조장시키는 분리통치정책의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뱅골 부지사 프레이저는 동부지역을 떼어냄으로써 뱅골이 선동적인 운동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는 뱅골분할이 캘커타의 지도자들과 신문들의 포악한 성격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총독정부의 관리들은 지방정치에 있어서 뱅골분주의 우위는 가장 절실하게 축소해야 할 악폐라고 믿고 있었다. 뱅골분할에 가장 호의적으로 정치적 논의를 전개하였던 사람은 총독정부의 내무상이었으며 그는 분리통치의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었다.

통합되어 있는 뱅골은 하나의 강력한 세력이다. 분리된 뱅골은 몇 개의 다른 방향으로 끌어갈 것이다. 이것이 국민회의 지도자들이 느끼고 있는 바이다. 그들의 우려는 완벽하게 정확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분할계획이 가져올 큰 利點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있다(Gopal, 1990: 269-270).

IV. 스와데시 운동의 전개

뱅골분할계획이 알려졌을 때 반발은 곧바로 나타났다. 첫째로 가장 강력한 반발을 보였던 뱅골 지식층은 분리계획을 점증하는 뱅골주민의 단결을 견제하고 분쇄하려는 사악한 시도라고 규정하였다. 이른바 교육받은 중간계급은 그들의 정치적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데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커어즌 총독의 캘커타 市자치회법 등은

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하여 반발을 보이고 있었다. ‘벵골인들은 뱅골의 양분은 부자연스럽고 옳지못한 일로서 이는 지식층의 강하게 떠오르는 세력을 꺾기 위한 커어즌 경의 마키아벨리적 수법’이라고 비난하였다(Griffiths, 1982: 288).

둘째의 반대이유는 새로운 행정조정으로 주민에게 훨씬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무거운 추가부담은 여러 해 계속되어 주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했던 뱅골의 유력한 민족지 「Sanjivani」는 뱅골분할에 따른 비용은 200만 루피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계산하였다(Mukherjee, 1986: 15).

셋째는 캘커타로부터 소외되는 데 대한 동벵골 사람들의 반발이었다. 동벵골 사회의 부유하고 교육받은 계층은 오랫동안 다방면에서 캘커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제 자신들을 새로운 州都인 다카에 심리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웠다. 개화되고 많은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캘커타와 유리됨으로써 야만적이고 조야한 동벵골로 취급당하면서 고립되는 것을 싫어하였다.

넷째로 분할계획은 교육받은 계층과 상공업 부르조아지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반대하였다. 분리되면 지식층의 동벵골 주민들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되고, 민족적 목표를 설정해 놓고 협조해갈 수 있는 기회를 저하시키며, 또 캘커타의 정치적 중요성이 훼손될 수 있었다. 캘커타 법원은 특히 분할계획에 강하게 반대했는데 그 것은 동벵골이 분리되면 머지않아 새로운 州에 분리된 고등법원이 설립될 것이므로 그들의 권위와 영향력이 크게 손상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뱅골지방의 교육받은 중간계급은 인도인 가운데서 정치의식이 가장 강했으며 정치적 개혁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커어즌 총독도 ‘캘커타는 국민회의 세력의 근거지이며 국민회의의 조종자와 입거품을 내뿜는 연설가들이 모두 여기에 살고 있다. 그들은 캘커타의 여론을 좌우하고 고등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방정부를 두렵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때때로 그들은 인도 총독정부에 심각한 압력세력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그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뱅골분할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Johnson, 1973: 549). 상공업에 종사한 민족 부르조아지는 뱅골분합이 이미 확립되어 있는 경제적 조직망을 혼란시키고 그들의 특권을 대표하는 단체들 예컨대, 상공회의소 등의 영향력을 훼손할 것을 우려하였다(Antonova, 1992: 125).

다섯째로 분할은 뱅골의 힌두와 모슬렘 사이에 경쟁과 적대감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때문이었다. 모슬렘 다수인 새로운 주를 신설하여 힌두 다수인 서벵골주와 대립시킴으로써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민족주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데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뱅골인들은 힌두나 모슬렘을 불문하고 동족으로서 일체감을 느껴왔었다. 그들은 동일한 인종일 뿐만 아니라 같은 뱅골어를 사용해 왔으며 뱅골의 동서지역을 통하여 예로부터 공통된 뱅골어문학을 소유해 왔으므로 다른 지방에 비하여

벵골어의 우수성마저 주장해 오고 있었다. 뱅골인들은 정부의 분리정책을 ‘사회적 응집력뿐만 아니라 주민의 인종적 일체감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예견하였다(Banerjea, 1925: 188).

여섯째 교통 통신의 발달로 거리와 시간이 축소됨에 따라 뱅골주는 이제 꼭 분할해야 할만큼 큰 州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개혁의 필요가 있다면 뱅골주의 분리가 아니라 부지사 대신에 자문기구를 둔 지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지사의 경우 참사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부가 확대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지사는 본국의 인도상이 임명함으로써 총독이 임명한 부지사보다 더욱 독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었다.

뱅골분할계획의 내용을 담은 리슬리 서한이 1903년 12월 출간되자 동벵골의 다카, 마이멘싱 및 치따공 등지에서는 당장 두 달 동안에 5백 회가 넘는 반대집회가 있었으며, 서벵골에서도 집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분할계획안을 비판하는 4·5만개의 전단이 뱅골 전역에 배포되기도 하였다(Majumdar R.C. 1988: 4). 뱅골 부지사 앤드류 프레이저를 중심으로 설득회합을 주선하고 새로이 지주협회를 결성하여 회유작업을 가졌으나 그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뱅골주민의 반발이 심각한 정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커어즌 총독이 1904년 초 동벵골을 여행하였는데 ‘표면적으로는 여론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위압하려는 의도에서’ 치따공 등 세 지역을 방문하였다(Banerjea, 1925: 186). 총독은 다카에서 ‘어떤 하나의 행정부로서는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바의 목적인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보살피고 통제하는 일을 8천만 주민에게는 배풀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뱅골에도 봄베이, 마드拉斯와 마찬가지로 지사직을 주어야 한다는 인도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결국 이 제도는 ‘분리된 따라서 약화된 권력을 갖는 정부를 의미하므로 더욱 더 중앙집권화와 비서관 중심의 행정부로 이끌 뿐이다’라고 하여 반대하였다(Mukherjee, 1986: 19-20). 뱅골분할의 필요성은 행정적 능률뿐만 아니라 다카를 자급자족하는 새로운 행정부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총독이 마이멘싱을 방문했을 때 토후 아차리야(Surya Kanto Acharya)는 정중하게 환대하였지만 분할조치는 뱅골에 커다란 재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여 반대하였다. 총독의 설득작업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뱅골분할정책에 대해서는 인도의 지방어신문 및 영어신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국신문 가운데서도 비판하고 나섰다. 「London Daily News」는 지역의 축소조정으로 커어즌 총독이 ‘비판의 폭풍속에 휘말려 있다’고 전하면서 ‘벵골의 2,500만 주민이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새로운 지방정부로 넘겨지게 되는’ 조치는 再考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하였다(Majumdar A.C. 1974: 212). 아울러 뱅골은 교육받은 계층을 다수 포함하

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주민의 저항세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였다. 한편 1867년부터 인도문관근무를 계속해 왔고 불과 2년 전에 아쌈 수석행정관직을 퇴임한 코튼(Henry Cotton)은 「Manchester Guardian」에寄せ한 글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부유한 뱅골과 그 주민을 자의적으로 분리하려는 생각은 뱅골 인종에게는 커다란 충격을 주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불만의 감정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형제와 친지와 친척들로부터 유리되어 행정, 언어, 인종, 사회적 특징이 뱅골과는 크게 다른 아쌈과 같은 후지지역에 내팽개쳐진 것은 직접 영향을 받은 주민들에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며 동뱅골에서도 공중집회가 거의 모든 도시와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하여 분리에 따른 뱅골 주민의 민족적 저항을 우려하였다(Mukherjee, 1986: 22-23).

항의집회는 1904년 봄부터 가을까지는 소강상태에 있었으나 정부가 아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질링(Darjeeling)을 제외한 북뱅골까지 새로운 주에 포함하려는 더 방대한 분할계획을 도모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저항의 움직임은 다시 거세게 일어났다. 코튼이 의장으로 추대되었던 1904년 말 국민회의 연례회의는 '정부의 분리제안에 단호한 반대'를 표시하고 '만약 뱅골주의 현체제가 능률적 행정을 위해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면 해결책은 국토의 재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사직으로 바꾸는 등의 정부형태에 있어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Banerjee, 1987: 206).

총독정부의 최종적인 뱅골분할계획안이 1905년 2월에 본국의 印度相에게 보내졌으며 인도상의 최종 동의서가 6월 9일 인도로 타전되었다. 7월 7일에 심라(Simla)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또 며칠 후 공표된 「뱅골분할에 대한 정부의 결의」를 보면 신설 주는 뱅골의 치따공, 다카 및 라지사히(Rajshahi; 다질링 제외)지구와 아쌈 및 티뻬라(Tipperah)구릉지역을 포함하여 「동뱅골 및 아쌈주」라고 명명하였으며 뱅골과 C.P. 및 마드拉斯주 사이의 지역조정은 없었다. 다카를 수도로 하는 새로운 주는 부지사의 지휘아래 있으며 입법참사회와 세부국을 두기로 하였고 캘커타 고등법원 관할권은 그대로 두었다. 동뱅골 및 아쌈주는 106,540 평방마일의 면적에 약 3,100만 명의 주민을 갖게 되었는데 종교별 분포를 보면 1,800만 명의 모슬렘, 1,200만 명의 힌두 및 기타 주민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분리된 후의 뱅골주는 141,580 평방마일의 넓이에 5,400만 명의 주민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 가운데 힌두는 4,200만 명이고 모슬렘은 900만 명이었다.

뱅골분할계획에 관한 최종안이 발표되었지만 아직 총독정부의 결의가 나오기 수일 전에 뱅골주민 지도자들이 모임을 갖고 대책을 모색하였다. 토후 조틴드라 모한 태고르(Jotindra Mohan Tagore)의 저택에서 열린 회합에서 국민회의 온건파의 유능한 지도자인 슈렌드라나드 바너지는 '분할계획안은 비밀리에 고안되고 비밀리에 논의되었으

며 주민에게는 조그마한 암시도 준 일이 없이 비밀리에 결정되어 버렸다'고 비난하였다. 일찍이 런던에서 실시된 인도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하여 관리로 출발하였으나 정부에 의해 해직된 후 민족주의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슈렌드라나드는 「정부의 뱅골분할 계획의 공표는 경악하는 대중에게 폭탄을 던지는 격이며 우리는 모욕을 당했고 굴욕을 당했으며 기만당했다」고 비난하고 「이 계획은 인도의 정치적 발전에 또 인도의 희망적 진보가 걸려있는 힌두와 모슬렘 사이의 긴밀한 연합에 치명상을 던져주고 있다」고 한탄하였다(Banerjea, 1925: 187-188). 뱅골 입법참사회 의원이었던 모줌다르(A.C Majumdar)는 '3천 만명이 넘는 영국국왕 폐하의 순진한 신민들의 운명이 한 마디의 언급도 없이 결정되어 버린' 총독정부의 처사에 분개하였으며, 역시 보스(B.N. Bose) 참사위원회도 '무갈제국이나 빠탄족(Pathans)족의 지배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재난이 우리 국가에 떨어졌다'고 비난하였다(Mukherjee, 1986: 32). 이 모임에는 유능한 뱅골지방의 지도자인 초우두리(Ashutosh Chaudhury)와 미트라(K.K. Mitra)등 뿐만 아니라 영국인으로서 헨리 코튼도 참석하였다. 회의를 마치면서 토후가 서명하여 뱅골 분할을 수정해주도록 커어즌 총독과 브로드리크(Brodrick) 인도상에게 전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뱅골분할계획이 정부의 결의로 발표되자 저항의 움직임은 급속도로 확산되어 갔다. 신문들이 한결같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Sanjivani」는 국민의 가슴속에 작용하고 있는 감정을 보이코트라는 이념으로 표현하자고 촉구하였으며, 「Englishman」은 분할 계획은 뱅골의 위신에 대한 일격이라고 비난하였고, 영향력있는 영국인 소유의 「Pioneer」는 분할계획으로 말미암아 다카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수리하는 등의 비용만 당장 750만 루피가 소요되며 주를 신설하는 데 따른 비용지출은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디나즈뿌르(Dinajpur)의 토후는 주민들의 반대집회를 주도하면서 시위원회의 사퇴 등 전면적인 보이코트 이념을 결의하였다(Majumdar R.C. 1988:14. Mukherjee, 1986:36-37). 대학생들은 리폰 대학(Ripon College)과 캘커타 대학교에서 집회를 갖고 스와데시라는 이름으로 보이코트 운동을 다짐했으며 관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다른 대학들에도 학생위원회를 연대 조직하기로 하였다.

캘커타 타운홀(Town Hall)에서의 1905년 8월 7일의 집회가 스와데시 운동에서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회합에는 국민지도자들과 뱅골 각지의 대표들이 참석하였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학생들이었다. 이미 수차례의 모임에서 스와데시와 보이코트 운동을 다짐했던 학생들은 교사들의 지휘로 대학광장 거리에 5천여 명이 집합하였다가 '뱅골통일', '분할반대'등의 깃발을 들고 타운 홀로 행진하였다. 이 집회는 토후 난디(Manindra Chandra Nandi)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나 1만2천 명이나 모여들자 회의장이 수용할 수 없어서 다른 두 개의 집회를 바수(B.N. Basu)와 모

줌다르의 사회로 따로 열 수밖에 없었다. 난디 토후는 분할조치를 ‘영국지배가 시작된 이후 뱅골어를 말하는 민족앞에 떨어진 최대의 재난’이라고 표현하고 정부의 행동은 ‘가장 큰 규모의 정치적 실책’이라고 비난하였다(Majumdar R.C. 1988: 16).

타운 홀의 집회가 채택하였던 5개 항목의 결의문은 뱅골분할조치가 ‘벵골민족의 견해를 무시한 불필요하고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비난하고, ‘재가를 받은 분할계획은 해당 주민에게 알리거나 공중토론의 형태를 전혀 갖추지 않았으므로 영국통치의 전통에 위배된 절차를 밟았다고’ 지적하였다(Mukherjee, 1986: 45). 또 결의문을 공식통로를 통하여 영국의 印度相에게 전달할 것을 다짐하고 합법적 투쟁방법을 선언하였다. 스와데시·보이코트 운동을 하나의 엄격한 합법적 무기로 보았던 나렌드라나드 쎈(Narendranath Sen)은 결의문의 제안연설에서 ‘당신들 앞에 제안하는 것은 영국의 상업적 이익에 얼마간 영향을 주려는 것이다. 어떻게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이 나라 정부의 現體制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합법적 방법이다. 우리들의 목표는 보복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다. 우리의 표어는 방어일 뿐 반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Johnson, 1973: 552).

결의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셋째 항목인 보이코트의 결의였다. 즉 ‘이미 여러 회합에서 채택한 결의에 공감하여 정부의 분할결정이 철회되지 않는 한 인도문제에 대한 영국국민의 냉담함과 그에 따른 총독정부의 인도여론의 무시에 대한 하나의 항거로서 영국제품의 구매를 삼가한다’는 내용이었다(Mukherjee, 1986: 45-46). 표현은 매우 온건하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매우 과격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인도민족주의운동에서 처음으로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托鉢政策’의 무효를 선언하고 적극적인 투쟁의 무기를 채택한 것이었다. 보이코트를 투쟁방법으로 설정함으로써 뱅골분할 반대투쟁은 소극적인 성격에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시민저항운동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뱅골주민들은 애국적인 열정을 가지고 스와데시 운동에 참여하였다. 스와데시라는 새로운 복음이 전파되어 나갔으며 연설과 시위가 일상의 다반사가 되었다. 여기에는 지식인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애국운동으로 번져나갔다. 영국의 설탕은 만드는 과정에서 소의 뼈와 피, 그리고 돼지의 내장이 섞였다고 선전하여 힌두와 모슬렘의 종교적 감정을 자극하였다(Johnson, 1973: 552-553). 바리살(Barisal)지방에서는 요리사와 하인들이 집회를 갖고 외국제품으로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의했으며, 칼리가트(Kalighat)지방의 세탁부들은 외국산 의복의 세탁을 거절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파리드뿌르(Faridpur)의 구두수선공들은 유럽제품 구두의 수선을 거부하였으며, 사제는 외제면직물을 사용한 결혼식의 집전을 거절하였다. 결혼선물이 외국제품일 경우 이를 반환하고 외국제품인 소금, 설탕을 사용한 축제에는 참석하

기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어린애들까지도 외국제품의 선물과 외국약품의 복용을 기절할 정도였다(Griffiths, 1982: 292).

학생들의 스와데시 운동에의 참여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들은 수많은 집회를 열고 조직적인 시위를 계속하면서 민족단합을 부르짖었다.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신발을 벗고 등교하기도 했으며 외제의복을 입고 교실에 나타난다는 것은몹시 위험할 정도였다. 리폰 칼리지에서는 외제 시험지를 배포했을 때 학생들이 일체가 되어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외국상품의 배척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외국물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상점을 감시하였으며 고객과 판매인에게 외제상품을 다루지 말도록 종용하였다. 가끔 학생들은 고객의 빨앞에 엎드려 간청하기도 했으나 설득이 실쾌할 경우에는 폭력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만체스터의 면직물을 불태우고 리버풀의 소금을 팽개치기도 하였다(Ghosh, 1985: 136). 몇몇 고등학교에서는 외제품의 판매를 저지하기 위하여 學生志願隊가 편성되기도 하였다. 스와데시 운동이 농촌으로 전파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학생들의 활동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인도협회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뱅골분할에 반대하여 1903년 12월부터 1905년 10월까지 5백 명 이상 5만 명까지 참여한 대중집회가 2천 회 이상이나 열렸다. 물론 이들 집회는 힌두와 모슬렘이 함께 혹은 따로 개최한 것을 포함한 것이며, 항의집회가 절정기에 이르렀던 때는 1905년 7월에 분할계획이 공식적으로 공포된 후 반 년동안으로서 이 해 말까지만 도시와 농촌에서 약 3백회의 모임이 있었다. 이때 동벵골에서는 힌두와 모슬렘을 포함한 여러 공동체와 계급을 초월하여 약 7만 명이 서명하여 분할을 반대한다는 주민의 뜻을 영국정부의 印度相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스와데시 운동은 동서벵골 이외에도 U.P.의 23개 지역, 봄베이주의 24개 지역, 편잡주의 20개 지역, C.P.의 15개 지역 및 마드拉斯주의 13개 지역으로 전파되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Gordon, 1994:82. Majumdar R.C. 1988:7-8,88).

V. 스와데시 운동의 효과

온건파나 과격파할 것 없이 인도국민지도자들은 스와데시를 단순한 경제적 의미만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온건파의 타월한 지도자였던 고칼레(Gopal Krishna Gokhale)는 스와데시를 애국심의 최고 상징으로 규정하였는데 ‘최고의 스와데시는 단순한 산업운동이 아니라 국민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또한 열정적이고 모든 것을 감싸는 열렬한 깊은 조국애’라고 보고 그는 궁극적으로 스와데시 운동에서 인도의 진정한 구원의 길을 찾았다(Natesan, 1920: 958). 슈렌드라나드 바너지도 ‘민중의 마음속에 민족자각의식의 씨를 뿌린 것이 스와데시 운동이며, 국민회의가 교육받은 계급을

공동의 광장으로 이끌었다고 한다면 스와데시 운동은 여러 계급과 국민대중을 함께 동일의 광장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보았다(Mukherjee, 1986: 198). 역시 마드拉斯 출신의 유능한 국민회의 지도자였던 아이예르(Subramania Iyer)도 같은 견해를 표시했는데, '국민회의가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인도국민의 반란인 것과 마찬가지로, 스와데시 운동은 인도 산업조건의 종속현상에 대한, 사실은 인도국민생활 전반에 있어서의 의존현상에 대한 하나의 반란이다'라고 말하였다(Majumdar R.C. 1988: 132). 스와데시 운동은 직접적으로는 산업의 의존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노력이지만 이 운동은 민족의 거대한 목표 즉, 인도 국민생활을 개혁하고 재건하려는 포괄적인 계획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인정하였다. 아직 명성이 알려지지 않았던 간디(Mohandas Karamchand Gandhi)는 '인도의 진정한 자작은 뱅골분할 이후에 일어났으며 뱅골분할의 그날은 바로 대영제국이 분열되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기록하였다. 간디는 뱅골분할정책에 대한 인도인들의 저항운동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여 '분할의 취소요구는 인도의 자치에 대한 요구에 다름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Majumdar R.C. 131).

스와데시 운동은 뱅골 각지로 전파되어 도회와 시골에서 몇 천 명씩 모이는 집회가 무수히 열렸다. 거기에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주, 법률인, 장인, 점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참석하였다. 스와데시 운동의 제1의 표적이었던 만체스터 면직물의 수요는 격감하고 토산품의 애용이 급증하였다. 영국면직물 중개업자들은 당황하였으며 한편으로 봄베이와 아메다바드의 직물 공장주들은 뱅골의 스와데시 운동에 협조적인 지원을 다짐하였다. 인도인 방직공장에서 만든 도티(dhoti) 5백만 벌이 봄베이로부터 급히 캘커타로 보내졌다. 스와데시 애국운동의 열기에 놀란 캘커타 상업 회의소는 만체스터 상업회의소에 전문을 보내 '印度相으로 하여금 지금 이곳에서 엄청나게 긴장된 감정을 만들고 있는 뱅골분할을 중지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뱅골인들은 수많은 대중집회에서 영국상품을 보이코트하기로 결의하였다. 만체스터 제품의 판매는 실제로 중단되어 버렸다. 인도상이 뱅골분할을 취소하고 보이코트가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파멸하여 장래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긴박한 상황을 전하였다(Mukherjee, 1986: 61). 당시 인도 면직공작에서 가동하고 있는 동력직기는 48,000 개로서 옷감을 연간 30만 꾸러미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수직기가 아마도 2-3배나 더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었다. 스와데시 옷감의 급증하는 수요에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였다. 애국심에 편승하여 찬더나고르의 거부 보스(Jogendra Nath Bose)는 직기 구입을 위해 쓰도록 2만 루피를 뱅골 직조공들에게 현금하기도 하였다(Mukherjee, 59).

스와데시 산업의 발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계류의 수입이 조장되기도 하였다. 가장 큰 증가를 보였던 부문은 방직기계의 수입으로 60만 루피의 가격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방직기계뿐만 아니라 담배·성냥·유리 제조기 및 편물기계의 수입도 증가하는 추

세를 보였다(Sarkar, 1994: 137).

스와데시 운동이 격렬한 기세로 확산되어 나가자 인도의 신문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특별히 스와데시 운동을 비방했던 신문들은 영국인이 경영하는 영어신문들이었다. 이 운동을 ‘엄청난 실책’이라느니 혹은, ‘9일 동안의 경이’로 끝날 것이 틀림없다고 조소하였다. 맹골분할정책을 줄곧 비난해 왔던 「Englishman」도 스와데시 운동이 절정기에 이르는 1905년 9월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 운동은 이미 죽어 사라졌다고 비꼬면서 소요를 제압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에 촉구하였다(Mukherjee, 1986: 64). 신문들의 돌변한 태도는 인도의 영국인 사회가 강렬한 스와데시 운동의 열기에 서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Indian Daily News」도 ‘모든 면에서 스와데시 운동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증거가 있다’고 역시 같은 시기에 보도하였다(Mukherjee, 64).

스와데시 운동이 영국상품에 얼마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미흡하다. 처음에 보이코트 운동이 목표로 삼았던 면직물, 소금, 구두, 담배와 그리고 나중에 참가했던 품목인 설탕 등에 대한 정확한 수입량을 알려주는 자료는 많지 않다. 중산층이 대부분 구입하는 담배와 구두의 수입품은 가장 극적으로 감소하였다. 학자에 따라서는 구두와 담배만이 스와데시 운동의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었을 뿐이며 스와데시 이념은 모든 주민에게는 확산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수입소금과 설탕을 배척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한 것은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스와데시의 大義를 따르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렇지만 이 주장에서 제시된 통계만을 살펴보더라도 1905-6년간에는 전반적인 수입상품의 감소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 구두와 장화의 수입이 41% 감소하는 것 외에도 수입면직물이 13%, 브란디가 14%, 위스키가 17%가 감소하고 가성복과 모직물의 수입품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Johnson, 1973: 555).

인도의 「Statesman」은 영국인이 운영하였지만 자유주의적인 신문이었으므로 상황을 사실대로 보도하였다. 만체스터 도티는 사실상 수요가 없다는 큰 상인의 말과, 1904년 9월에는 면직물 500꾸러미를 팔았는데 일년 후에는 겨우 할인가격으로 125꾸러미를 처분했을 뿐이며 주문이 계속 취소되는 상황을 중개상인의 증언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이 기간에 영국면직물을 판매한 가격은 제쏘르(Jessore)의 경우 30,000루피에서 2,000루피로, 다카는 5,000루피에서 2,000루피로, 하자리박(Hazaribagh)은 10,000루피에서 500루피로, 누데아(Nuddea)는 15,000루피에서 2,500루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었다(Johnson, 65).

스와데시·보이코트 운동의 효과는 당분간은 분명히 크게 나타났다. 스와데시 정신은 영국제품 면직물에만 국한했던 것이 아니고 소금, 설탕, 구두, 담배 등에도 확대되

었다. 스와데시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뱅골이 리버풀 소금의 가장 큰 소비고객이었고, 설탕 소비량은 영국령인도에서 범마와 봄베이 다음으로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스와데시 운동으로 특히 소금의 경우는 그 균형이 갑자기 바뀌고 말았다. 영국 소금의 뱅골에서의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여 1905-6년에는 59%나 감소하고 1908-9년에는 둔화되었지만 28%의 감소를 보였다. 영국소금이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의 소금 수입은 증가하였다. 스와데시 운동이 절정기에 접어드는 1905년 8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외국상품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면사의 수입량은 1,361,452 헌드레드웨이트(Cwt)에서 752,994로 44%가 감소하고 있으며, 옷감은 145,128,912 애드에서 112,497,948로 22%가 감소하였다. 외국 소금은 722,495 몬드(maund)에서 581,480 몬드로 19.5%가 감소한 반면에 인도 소금은 47,580 몬드에서 76,615 몬드로 60%나 급증하였다. 수입품의 구두도 76,824 켤레에서 20,965 켤레로 68%가 감소하였으며, 담배도 57,803,690 갑에서 25,685,880 갑으로 55%가 줄었다(Sarkar, 1994: 145) <*Cwt=112파운드(50.8kg) maund=82.28파운드>.

한편 지역별로 스와데시·보이코트 운동의 결과를 살펴보면 1904-6년간에 치파공의 경우 유럽제품의 옷감은 44,854 몬드에서 12,389 몬드로 감소한 반면에 인도산 옷감은 1,555 몬드에서 11,005 몬드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카는 치파공의 경우만큼 커다란 성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역시 같은 기간에 유럽제품의 옷감도 122,591 몬드에서 94,718 몬드로 감소하지만 인도산 옷감은 5,269 몬드에서 9,394 몬드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arkar, 147).

캘커타 세관의 1906년 9월의 보고서는 일년 동안 보이코트 운동의 영향을 보면 전년도 8월의 수입량보다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영국)소금의 수입량은 14만 몬드가 감소하고, 인도소금은 48,000몬드에서 77,000몬드로 증가하고 있다. 수입면직물은 3천만 애드가 감소하고, 수입솜, 빗줄, 텔실의 가격은 약 1천만 루피나 떨어졌다. 외제구두의 수입은 75%가 줄고, 담배도 약 50%가 감소하였다(Majumdar R.C. 1988: 57). 영국설탕이 아닌 자바(Java)의 설탕이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었다. 양복, 비누, 화장품, 단추 및 영국 잡화상품도 역시 스와데시 운동에 따른 타격을 받고 있었다.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영국상품을 판매한다는 간판을 자랑스럽게 걸어놓았었으나 이제 그것을 내리고 스와데시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형편이었다(Mukherjee, 1986: 67).

물론 순수한 산업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스와데시 운동은 可視的인 성공이나 경제적 구조의 획기적 변혁의 가능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보다 깊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영국인 제조업자와 상인들에게 타격을 주고 토착산업을 장려하겠다는 열정의 표현이며 저항의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보이코

트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에게 가하는 경제적 책략이었다. 「London Evening News」는 10월에 ‘우리는 뱅골의 보이코트 운동이 영국제 수입화물에 가한 가공할만한 반응의 정확한 성격을 알게 되었다. 이전의 모든 주문을 취소하는 뱅글로부터의 전보가 날마다 영국에 담지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Mukherjee: 72). 뱅골의 한 영국인 회사가 본국으로 보낸 電文에서 보이코트 운동의 영향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보이코트의 결과는 비참하다. 장화는 안팔리고 성수기는 끝났다. 양말, 모자, 허리장식품도 또한 마찬가지다. 영국제품과 유럽대륙제품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일본제 수입품은 낮은 가격에 잘 팔리고 있다. 한 회사가 영국상품에다 ‘독일제 품’이라고 붙여서 판매하는데 성공하고 있다.’(Majumdar R.C. 1988: 58). 「The Times」의 보도에 의하면 ‘1908년 12월의 영국수출물량은 면직물이 89,065,000야드 즉 18.6% 가 감소하고 있는데 가격으로 보면 £ 1,514,213 즉 23.7%나 줄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도에서 77,416,000야드가 감소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였다(Majumdar R.C.: 58).

뱅골분할은 1905년 10월 16일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언어와 인종이 같은 민족으로서 오랫동안 역사적 전통을 함께 해 왔던 뱅골인들이 양분되는 비운의 날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뱅골인들은 이 날을 엄숙한 민족적 애도의 날로 맞이하였다. 미리 계획된 캘커타에서의 행사는 아침에 손에 손을 잡고 간지스강으로 행진하여 성수에 몸을 담그고 타인에게 형제애의 사랑을 표시한 후 하루를 밥짓지 않고 단식하기로 하였다. 오후에는 주민의 단합을 다짐하는 연합공회당의 착공식을 갖고 박바자르(Bagbazar) 토후 보스(P.N. Bose)의 저택으로 행진하여 국민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행사를 갖는 것이었다. 슈렌드라나드 바너지를 비롯한 민족지도자들이 새벽에 간지스강으로 행진했으며 수많은 인파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거의 모든 힌두가정에서는 단식을 단행했으며 직장에 나가는 사무원들은 뱅골분할에 항의하는 표시로 맨발로 출근하였다. 연합공회당 착공식에는 슈렌드라나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줌다르, 미트라,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등을 비롯하여 적어도 5만 명이 운집하였는데 이 숫자는 여러 기록들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병석에 있던 의장 보스(A.M. Bose)의 연설문을 대독한 슈렌드라나드는 뱅골분할의 날을 ‘민족적 애도의 날이면서 동시에 歡喜의 날’이라고 묘사하였다. 뱅골인들이 분열된 것은 애도해야 하지만 힌두, 모슬렘, 기독교인 그리고 東西北 뱅골인 가릴것 없이 전민족이 함께 웅칠 수 있게 된 것은 환희라고 묘사하였다. 현장에서 모금하고 또 성금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이 날 하루에 약 5만 루피가 모아졌는데 이는 민족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국민기금의 기초가 되었다.

뱅골분할조치가 공식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스와데시 운동 내지 인도민족주의운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인도민족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청원과 권유의

시대는 끝났으며 영국민에 기대해 왔던 정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도 흔들리게 되었다. 정치적 신념이 좌절된 상태에서 민족주의자들이 급진주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제 스와데시 운동의 역사는 때리고 되받아때리는 반복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즉 총독정부의 억압과 독재정치에 대해 무장을 갖추지 못한 민족이 소극적 저항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것이었다.

스와데시 운동이 도시와 시골로 확산되어 갔지만 학생들의 애국적 열기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벵골 전역의 학생들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총독정부가 처음으로 억압조치를 시작한 것이 이른바 카라일 회람이었다. 벵골주정부의 수석비서관 카라일(R.W. Carlyle)이 치안판사와 정세관에게 비밀리에 내린 지령문의 내용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들을 이용하는 것은 교육에 절대적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 자신의 이익에도 크게 유해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학생들이 스와데시 운동에 참가하는 것을 학교장이 막지 못할 경우 보조금과 장학금을 철회해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역치안판사가 학교장에게 카라일 회람의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Statesman」에게 넘어가 1905년 10월 22일에 보도되고 말았다.

카라일 회람이 대표적인 모델이었을 뿐 스와데시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처벌하라는 지시문은 수없이 하달되었다. 동벵골주정부의 비서관 리온(P.C. Lyon)과 랑뿌르 지방의 치안판사 에머슨(T. Emerson)의 회람이 이어졌으며 특히 에머슨은 질라(Zilla : 郡)학교장들에게 스와데시 운동의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5루피의 별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다. 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교출석을 허용하지 말도록 강조하였다. 학생들의 시위참여를 금지하는 지시문 가운데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것은 풀러(Bamfylde Fuller)의 동벵골주정부가 내린 반데·마타람(Bande-Mataram)회람이었다. 인도인들의 행진구호인 반데·마타람을 대중앞에서 소리쳐 외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이었다. 영국인 관리는 반데·마타람을 ‘파괴의 여신 칼리(Kali)에게 복수를 기원하는 구호’로 해석하였다(Singh, 1993:142 Banerjea, 1925:205). 반데·마타람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노래의 한 단어였다. ‘어머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 즉, 조국에 대하여 나는 경배한다’는 평범한 의미로서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을 강조하는 말이었다. 주정부는 이 회람에 따른 억압조치를 강화해 나갔다.

카라일 회람은 인도신문들에 의해 그 의도가 악랄한 反스와데시 운동이 목표라고 묘사되었다. 이 회람에 대한 반응으로 이를 후에 변호사 압둘 라술(Abdul Rasul)의 사회로 대규모의 공중집회가 열려 배편 찬드라 파알과 로이(J.N. Roy) 등이 정부의 억압조치를 비난하였다. 10월 27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었는데 특히 라빈드라나드 태고르는 회람을 작성한 주정부를 공격하고 학생공동체가 채택한 입장을 전폭 지지할 것을 다짐하였다. 반데집회가 잇따랐으며 당국은 억압정책으로 대처하여 1906년 4월

바리실에서는 뱅골분할을 반대하는 뱅골지역회의에 모인 대표들을 공격하여 강제로 해산시켜버리기도 하였다. 카라일 회람에 이은 일련의 학생들에 대한 탄압조치에 대한 반응으로 인도인들은 또다른 애국적인 스와데시 운동의 일환으로 관립학교를 배척하고 국민교육제도의 수립운동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VI. 바드라록 계층과 스와데시 운동

스와데시 운동의 가장 혼신적인 참여자는 청년들이었으며 스와데시의 大義에 순교적 열정을 보였던 사람들이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은 당국의 탄압조치에 가장 연약하게 노출되어 있었으며 그들에게 黷校, 징계, 벌금 등의 가혹한 제재가 수시로 가해졌다. 새삼 언급할 것도 없이 어린 학생들의 순수한 애국적 행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스와데시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바드라록(bhadralok)계층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드라록은 인도의 인습적인 계급의 기준인 카스트 제도에 의해 신분을 분명히 확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바드라록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의적으로는 ‘예절바른 사람’으로서 ‘존경할만한 사람’, ‘紳士’의 의미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계급으로 본다면 영국의 젠트리(Gentry)에 비유되는 뱅골 사람들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젠트리와는 달리 바드라록은 한마디로 지주라고 단정해버리기는 어렵다. 서양의 중간계급과는 달리 뱅골 바드라록은 상공인 계급은 더욱 아니었으며,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바드라록은 한가한 小자민다리, 농민으로부터 지대를 거두는 사람, 사무직원, 관리 및 다양한 전문직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바드라록은 거의 예외없이 뱅골지방의 윗 카스트인 브라만(Brahmans), 카야스타(Kayasthas), 바이다(Vaidyas) 가운데서 발견되는데 예컨데 브라만계급 출신이 요리사로 고용되었다면 바드라록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보다 낮은 카스트지만 서구식 교육을 받았거나 법률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바드라록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말하면 바드라록은 상층계급의 출신으로서 ‘영향력과 권세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관건’인 교육 특히, 영어교육을 받았고 다소간의 사회적 영향력과 재산을 가지면서도 노동이나 상공업과 관련된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들 즉 뱅골지방의 교육중간계급이었다(Johnson, 1973: 538). 그들 가운데서 상층 카스트의 바드라록은 노동이나 상공업에 대해서는 금기시하고 있었다(Chakrabarti, 1992: 9-10).

영구정액제의 실시로 인하여 바드라록의 많은 숫자가 지대관리인으로 토지에 뿌리를 박게 되었다. 그들은 토지에 개입된 이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민다르와 농민 사

이의 지대료에서 생긴 소득으로 살아갔다. 19세기 말부터 바드라록의 다수가 토지에 근거하고 살아가기가 점점 어렵게 되어 갔다. 상층 자민다르와 불만에 가득찬 농민 사이의 중간에서 그들의 형편은 악화되어 갔는데 특히 19세기에 들어서 상속법에 의해 재산이 분배됨에 따라 그들이 토지로부터 얻게 되는 수입액은 더욱 감소되어 갔다. 뱅골분할이 논의되기 직전 바드라록의 숫자는 특별히 증가하였는데 1891년의 928,277명에서 1901년에는 1,516,140명으로 급증하여 십 년동안에 63%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대납부자는 같은 기간에 오직 11%만이 증가하여 지대관리인에 비하여 지대납부자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었다(Chakrabarti: 10-11).

지대관리인은 큰 비율로 증가하는 데 비하여 지대납부자가 거기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못한 것은 결국 지대관리인의 수입의 감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뱅골 중간계급의 근거지인 다카와 파리드뿌르에서는 소요의 원인이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데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영구정액제에 따른 소득으로는 바드라록 집단을 더이상 지탱해 나가기가 어렵게 되었는데 바드라록의 숫자는 크게 늘고 생계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바드라록의 상당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또 다른 생계수단을 찾아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바드라록의 불만은 깊어만 갔다.

바드라록은 뱅골지방의 교육받은 계층으로 원래 문화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었다. 그들은 초기에 교육의 혜택을 받고 좋은 직업을 잡을 수 있는 무한의 기회를 누렸던 데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사람들이었다. 원래 그들은 상위 카스트 출신으로서 북부인도를 휩쓸어 모든 관청 및 교육기관의 자리를 대부분 차지함으로써 '카스트 전제정치'를 행하였다(Johnson, 1973: 534). 그들은, 조로아스터교도(Parses)와 함께, 맨먼저 자제들을 영국에 유학시킨 사람들이었으며, 교직, 법률직, 의료직을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영어교육이 여러 사람에게 또 인도의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어 나감에 따라 그들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축소되어 갔으며 그들의 지위와 수입도 점차 위축되었다. 바드라록은 옛날의 위세와 번영과 명성에 대한 기억과 함께 서구식의 사고방식 및 편안한 생활수준의 기대가 한데 어울려 심각한 갈등을 느끼게 되었다(Misra, 1985: 393).

영어교육의 확대로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도 크게 축소되었다. 대학법의 통과와 시험에 의한 채용자격 제한으로 교육계급의 활동영역은 더욱 좁아졌다. 채용된 교사들도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생활의 압박을 받았다. 농민은 현물납세이므로 물가인상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교사와 봉급생활자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렇지만 스와데시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교사와 법률직에 종사한 사람들이었으며 모금운동에서도 자발적인 열의를 보였다. 스와데시 운동과 관련된 소

송사건은 변호사들이 변호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민족의식에서 비롯한 애국적 행동이었다. 스와데시 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집단이 학생들이었는데 그들은 대체로 중간계급 또는 하위중간계급 출신의 가난한 부모들이 보여준 희생적인 교육열에 힘입어 영어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브라만계급 출신의 사람들은 뱅골에 많이 살고 있었으며 동뱅골보다는 서뱅골에 약 세 배나 많았다. 카야스타 계급과 바이다 계급은 서뱅골보다 동뱅골에 많았다. 자민다르 가운데는 브라만 계급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이 카야스타 출신이었다. 보이 코트 운동을 지지했던 자민다르 가운데는 마이멘싱, 우따라파(Uttarapa) 및 바그야쿨(Bhagyakul) 등지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자민다르는 지주로서 농민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소유자로서 점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었다. 캘커타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뱅골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재지 주는 신설주인 동뱅골로 이사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우려하게 되었다. 그것보다 자민다르에게 더욱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것은 뱅골분할 이후 영구정액제가 폐지되어 지금까지의 토지세제가 허물어질 것이라는 풍문이었다(Antonova, 1992: 125). 정부와 농민 사이에서 정세대리인으로 수 백년동안 누려왔던 특권이 허물어진다는 데서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스와데시 운동과 폭력과 활동에 상당수의 자민다르가 적극적인 지원을 보였던 것은 그들의 특권이 위협받는 절박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뱅골분할이 영구정액제의 폐지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자 자민다르는 곧 지원을 철회하고 말았다. 1907년에 가면 자민다르들은 정부에 충성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배신감을 느낀 과격파의 오로빈도 고슈(Aurobindo Ghose)는 자민다르를 ‘교양을 갖추지 못한 인간, 퇴적한 아첨꾼’ 혹은 ‘시골의 불한당’이라고 매도 하였으며, 폭력파의 기관지 「Yugantar」는 그들을 ‘뱅골의 영원한 노예부류’라고 묘사하면서 자민다르와 총독정부를 공격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인도국민회의도 뱅골분할반대운동에 동조하여 스와데시, 보이코트, 스와라지(Swaraj; 自治) 및 민족교육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총독정부의 뱅골분할조치에 반대하는 데는 온건파와 과격파의 구별이 없었으며 좁은 의미에서의 스와데시 운동에 있어서도 의견의 차이는 없었다. 온건파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영국의 정치전통에 충성적 신뢰를 표시해 왔던 고칼레도 뱅골분할정책에 대해서는 커어즌 총독을 무갈제국의 폭군 아우랑자브(Aurangzeb)에 비유하였으며(Banerjee, 1987: 200), 1905년 국민회의 의장연설에서 뱅골분할정책을 역설적으로 ‘국가민족발전 역사상 하나의 횡기적 사건’이 될 수 있다고 갈채를 보냈다. ‘왜냐하면 영국의 지배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교조와 카스트의 구분없이 인도 각계각층의 공동체가 공통적인 충격에 의해서 공통적인 악폐에 대

해 함께 행동하고 같이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Natesan, 1920: 689). 역시 온건파의 지도자이며 ‘벵골지방의 無冠의 제왕’인 슈렌드라나드 바너지도 인도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킨 채 ‘비밀리에 입안하여 비밀리에 논의하고 비밀리에 결정해버린’ 총독의 뱅골분할에 대한 발표를 ‘경악하는 대중에게 폭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Ghosh, 1985: 111).

그렇지만 온건파의 스와데시 운동에 대한 태도는 그들이 영국통치에 대하여 평소에 간직하고 있던 깊은 신뢰감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았다. 슈렌드라나드는 ‘우리는 모든 일에서 스와데시되어야 하고, 우리의 사고와 이상과 포부까지도 스와데시되어야 하며, 우리의 교육의 방법과 발전도 스와데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스와데시는 反英 운동이 아니며 영국상품배척은 뱅골분할에 대한 반항에서 또 영국국민의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서 취해진 잠정적 조치일 뿐이며’ 영국인에 대한 증오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Mukherjee, 1986: 198). 고칼레도 국민회의 의장연설에서 ‘보이코트는 한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하나의 정치적 무기이고, 이 무기는 국단적인 경우를 위하여 유보되어야 하며, 인간의 가슴 속에 파고드는 가장 고귀한 이념의 진정한 스와데시 운동은 애국적 경제적 운동일 뿐’이라고 규정하여 인도국민이 국단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였다(Natesan, 1920: 690-691). 온건파는 스와데시 운동이 인도의 전지역에 파급되고, 보이코트가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온건파가 그들의 정치적 신념인 합법적 접진적 투쟁방법과 自制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과격파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스와데시 · 보이코트 운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들은 스와데시 운동이야말로 과격파의 행동철학이 일반대중을 교화 시킨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고무적으로 해석하였으며, 과격파의 대표적 인물인 티일락(Bal Gangadhar Tilak)은 ‘우리의 육체와 마찬가지로 정신도 스와데시 되어야 하며 스와데시 사상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拙著, 1993: 202). 편집 출신의 과격파 지도자였던 라즈파트 라이(Lajpat Rai)는 ‘스와데시 및 보이코트 운동을 새로운 인도의 종교로서, 자기를 회생하는 애국심의 표현으로서,自助하는 인도국민을 만드는 수단으로서, 또 영국지배에 대한 인도국민투쟁의 선봉으로서 고양시킬 것’을 촉구하였다(Ghose, 1980: 237). 역시 ‘젊은이들의 영웅’인 과격파의 비핀 찬드라 팔(Bipin Chandra Pal)은 ‘영국상품배척운동을 각 지방에까지 파급시켜 영국지배에 대항할 영원한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국민회의는 이 운동을 전면적인 경제적, 정치적 배척운동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Argov, 1977: 120-121). 과격파 지도자 가운데서 불과 5년동안 민족주의운동에 참여했으면서도 총독정부의 가장 많은 감시를 받았던 오로빈도 고슈는 ‘스와데시 · 보이코트의 핵심이론

은 외국인 정부에 협조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그 정부를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영국상품을 조직적으로 혹독하게 거부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더이상의 착취를 불가능하게 만들고…官立學校를 거부하고 외국인의 법정과 외국인의 행정부를 배척함으로써 영국통치를 불능상태로 만들어버리자'고 호소하였다(Ghose, 1987: 37- 38). 이와같이 스와데시 · 보이코트 운동의 성격문제를 놓고 온건파와 과격파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으며 민족교육문제와 특히 자치문제를 놓고는 더욱 침예하게 대립하여 궁극적으로 국민회의가 분열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VII. 모슬렘의 반응

스와데시 운동에서 모슬렘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스와데시 운동이 힌두만의 저항운동이라고 한다. 물론 인구비율의 이상으로 모슬렘에 비하여 훨씬 많은 힌두가 스와데시 운동에 참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슬렘이 일체가 되어 단합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조직적으로 반대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벵골분리조치에 대한 모슬렘의 반응은 당장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오히려 힌두와 함께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벵골 모슬렘 가운데서 가장 잘 살고 고귀하고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분할조치를 비난하였으며 모슬렘 농민도 다수가 반대의 입장이었다'(Majumdar R.C. 1988: 10). 동벵골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모슬렘 지도자의 한 사람인 다카 지방의 토후 살리물라(Nawab Salimullah)는 벵골 분할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대표적 인물이었다. 처음에는 살리물라가 '벵골분할 조치는 우리들을 무기력으로부터 분기시켜 우리들의 관심을 행동과 투쟁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총독정부의 분할정책을 비난했던 것이다(Ghosh, 1985: 121).

커어즌 총독은 벵골분할정책에 대하여 힌두와 모슬렘이 연합하여 반대운동을 전개 할 것을 우려하고 모슬렘을 설득하기 위해 동벵골 지방을 방문하였다. 그는 주민을 분열시켜 모슬렘을 끌어안은 정책을 추진하였다. 총독은 대중집회에서 벵골분할의 타당성을 설명하여 분할의 목적이 벵골 지방의 행정적 능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 까지 소외당해온 동벵골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총독은 다카 부지사 풀러를 통해 이 지방의 모슬렘을 대표하는 인물인 토후 살리물라를 설득(매수)하는 데 성공하였다. 풀러는 모슬렘의 호감을 사고 벵골분할반대운동에서 힌두를 고립시키기 위해 갖은 수단방법을 동원하였다. 풀러는 '벵골분할을 처음에는 비열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토후 살리물라에게 10만 파운드(140만 루피)를 低利

로 대부해줌으로써 마음을 돌리도록 만들었으며, 또 동벵골에는 관직의 대부분이 모슬렘을 위해 배정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등용될 자격이 구비된 모슬렘이 없어서 공석으로 남아 있다'고 선전하여 모슬렘을 설득하였다(Singh, 1993: 142. Majumdar R.C. 1988: 112). 정부당국의 억압정책도 힌두를 표적으로 삼았고 모슬렘은 비켜나갔다. 주 정부의 모든 사소한 박해가 오직 힌두에게만 가해졌으며, 관직에서 축출된 경우도 힌두뿐이었고, 정부의 지원이 철회된 경우도 힌두학교에 대해서였다. 이제 토후 살리물라가 뱅골분할은 결국 모슬렘에게 커다란 이익이 된다고 공표하고 설득작업에 나섬으로써 대부분의 동벵골 모슬렘은 총독의 뱅골분할정책을 지지하게 되었다.

뱅골분할정책에 대하여 힌두와는 달리 모슬렘은 냉담하거나 혹은 오히려 지지하고 나섰던 것은 이와같은 총독정부의 친모슬렘정책과 다카 토후 살리물라의 반힌두운동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으며 알리가르(Aligarh)운동의 지도자들이 미친 영향력이 컸다. 알리가르 지도자들은 힌두에 대항하여 모슬렘 공동체의 이익수호와 지위향상을 외쳤으며 인도국민회의를 '힌두회의'라고 비난하면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拙稿, 1975:117-125). 그들은 스와데시 운동에 대해서도 '힌두의 선동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모슬렘을 이 운동에서 유리시켜 나갔다.

모슬렘의 주요 단체들은 각 지방의 모슬렘으로 하여금 뱅골분할정책에 반대행동을 취하지 말도록 종용하기에 이르렀다. 모슬렘 지도자들은 풀리의 말과 같이 신설주인 동벵골에서는 모슬렘이 다수가 되기 때문에 이전의 통합주에서는 기대할 수도 없었던 많은 관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멀리 캘커타로부터 통치될 때는 아무런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이제 다카로부터 통치되기 때문에 이 지방의 큰 발전을 보장받은 것으로 믿게 되었다. 뱅골분할이 시행되는 1905년 10월 16일에 모슬렘은 '뱅골분할에 의하여 지금까지 힌두에게 고통받아 왔던 많은 압박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데 대해 신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군중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Aziz, 1987: 25). 대부분의 모슬렘은 스와데시 운동에 냉담하였는데 토산품은 외국제품보다 질이 떨어지고 값이 비싸므로 가난한 모슬렘은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으며 反英運動에 휘말려들어가 희생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모슬렘은 대체로 뱅골분할에 대한 힌두의 반항운동이 특히 공직에서 모슬렘에 대한 힌두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영국인 지배자가 친모슬렘 입장을 보인 분위기를 이용하여, 또 신임 印度相 모얼리(John Morley)가 인도입법참사회의 확대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공표에 고무되어 아가 칸(Aga Khan)이 이끄는 36명의 모슬렘 대표단이 영령인도의 하계수도인 심라로 총독 민토(Lord Minto; 1905-10)를 방문하여 '정치적 중요성과 모슬렘의 제국 방어에 공헌해 온 가치를 고려하여' 특혜를 베풀어 주도록 간청하였다(Philips, 1967: 190).

그 결과는 나중에 이른바 ‘모얼리 · 민토 改革’에서 모슬렘에게 분리선거제라는 특혜가 주어지게 되었다. 그보다 앞서 심라대표단에 참여하지 못했던 살리물라가 모슬렘 조직체의 결성을 촉구함으로써 그의 선언서가 기초가 되어 민토 총독을 방문했던 그 해인 1906년 말에 전인도모슬렘연맹이 탄생하였으며(졸고, 1975: 29-33), 이 단체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구에 인도 모슬렘의 민족주의운동과 파키스탄분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그렇지만 스와데시 운동에 처음부터 상당수의 모슬렘 지도자와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여 그 전위역할을 담당해 온 것도 사실이었다. 수많은 대중집회에 소수의 모슬렘들이 계속하여 참여하기도 하고 모슬렘만의 집회를 갖기도 하였다. 예컨대 1만5천 명이 참여했던 1905년 9월 22일의 타운 홀 집회에는 「Bengalee」가 묘사한 바에 의하면 ‘귀족과 신흥지주, 소상인과 중간계급, 학생과 사무원, 각 직장의 대표들, 힌두와 모슬렘과 기독교인 및 자이나교도 등 종교와 정치적 신념에 구애되지 않는 노소의 사람들이 모여 새 생명의 맥박을 느낄 수 있었다’(Mukherjee, 1986: 68). 다음날 역시 캘커타에서는 라술(Abdul Rasul)이 사회를 맡은 대규모의 모슬렘 집회가 있었다. 이 모임에는 세 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첫째, 내 고장의 개혁을 위해 힌두가 채택한 조치에 모슬렘들이 아무런 동정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최근의 보도에 모슬렘 공동체가 반대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힌두에게 모슬렘의 지지를 보냄 둘째, 모슬렘은 단순히 뱅골분할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힌두와 제휴할 마음을 표현함 셋째, 스와데시 제품의 사용에 대해 모슬렘의 강력한 지지를 보냄 등이었다(Mukherjee: 69).

다음해 5월 20일에는 1만여 명의 힌두와 모슬렘이 행진하면서 힌두 구호와 모슬렘 구호를 번갈아 가면서 외쳤다. 시위행진에는 힌두지도자 더트(Aswini Kumar Dutt)와 모슬렘 변호사 호세인(Syed Motahar Hossain) 그리고 역시 모슬렘 자민다르 아슈라프(M.Mahomed Ashraff) 등이 앞장섰다. 10월 16일에는 뱅골분할 일주년을 맞이하여 반대시위가 동벵골주에서만 적어도 39개 지방에서 열렸으며 대부분의 집회에는 모슬렘 대규모로 참여하였다. 여러 곳에서 집회행사를 모슬렘이 주관하고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스와데시 운동의 일환으로 짓기로 한 연합회관의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는 스와데시 운동의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슬렘의 바하두르(Mahammad Yusuf Khan Bahadur)가 의장이었으며 많은 모슬렘들이 참여하였다.

제22차 국민회의(1906)에서 모슬렘대표 아티쿨라(Khawaja Atiqullah) 토후는 뱅골분할정책을 비난하였다. 아티쿨라는 다카지방 살리물라 토후의 동생으로서 국민회의에서 뱅골분할을 비난하는 결의안에 動議함으로써 동벵골의 모든 모슬렘이 일체가 되어 뱅골분할을 지지한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었다(Ghosh, 1985: 122). 국민회의 온건파 지도자의 한 사람인 슈렌드라나드 바너지는 이 회의에서 뱅골

분할 반대시위 259건 가운데 135건은 힌두와 모슬렘이 단합하여 반대해 왔다고 밝히고 주요 시위운동은 캘커타, 다카, 마이멘싱 등지에서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뱅골 지방의 유능한 모슬렘 지도자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Zakaria, 1991: 101).

VIII. 결 론

스와데시 운동은 인도민족주의운동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스와데시 운동은 영국 지배세력과 인도 국민지도층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이 표면화된 것이었다. 스와데시 운동을 계기로 실내에서의 조용한 국민회의 활동이 하나의 거대한 민족주의 운동으로 변모하였다. 국민회의가 교육받은 중간계급을 공동의 광장으로 이끌어 냈다면, 청년학생을 비롯한 더많은 애국시민을 공동의 광장에서 규합했던 것은 스와데시 운동이었다. 인도국민회의가 지식층에게 조국에 대한 고상한 애국심을 심어주었다면 다수의 신세대에게 민족적 자각의식의 씨앗을 심었던 것은 스와데시 운동이었다. 인도인들은 스와데시 운동이 청원이나 권유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위력적인 무기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스와데시 운동은 인도인들에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올바로 바라보고 자기희생을 통하여 협동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다.

스와데시 운동이 인도정치에 미친 영향도 중요하다. 뱅골에서는 스와데시 운동이 지금까지는 국민회의나 다른 정치조직으로부터 초연한 자세를 취해 오던 지주귀족을 정치적 소용돌이로 끌어넣었다. 뱅골밖에서는 이 운동이 전인도에 미동에서 깨어날 수 있는 충격을 주어 국민의 정치적 의식을 고취시켰다. 여러 주들은 역경의 순간에 한데 뭉쳐 뱅골과 어려움을 같이 했으며 뱅골사태는 지금까지 영국의 통치와 정치제도에 깊은 신뢰감을 가져왔던 국민지도자들에게 환멸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영국의 인도지배에 대한 조용한 그러나 적극적인 항거의 표현이었던 스와데시 운동은 비록 당분간이라 할지라도 인도국민지도자들의 상이한 견해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반목하기도 했던 국민회의를 중심으로한 민족지도자들이 함께 회합을 갖고 같이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스와데시·보이코트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이다.

커어즌 총독은 자타가 인정하는 탁월한 인물로서 재임기간에 대단한 추진력으로 돌진하였지만 오직 능률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적 능률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뱅골인 더 나아가 인도인들의 민족정서를 무시함으로써 나타난 손실이 총독정부에게 더 큰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능률은 하나의 과정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었다. 커어즌 총독의 능률의 극대화는 이룩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인도국민에게는 민족의식에 의해 함께 풍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영국의 지배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계급과 교의를 초월한 민족공동체가 공통적인 충격에 의해 외부의 압력이 없이도 지배자의 정치적 과오에 단합하여 대항하는 위력을 보여 주었다. 학생과 젊은 청년들의 애국적인 참여열정이 분출했으며, 법률 교직 언론 및 의료의 전문직 사람들이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관리와 개인회사 및 기업체의 직원들이 상당수 참여하였으며 특히 스와데시 운동에는 많은 자민다르가 참여하여 ‘무도한 지주의 소름끼치는 위력’을 보여준 점이 주목할만하다. 애국적인 자민다르들은 혼자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휘하의 수많은 사람들을 스와데시 운동에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자민다르 가운데는 폭력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온건한 스와데시 운동에 참여한 사실은 의외의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 스와데시 운동을 통하여 도처에서 열성적 참여를 보여준 사람들은 자민다르보다는 오히려 중간규모의 토지소유자들이었다. 그들은 소지주라는 지위보다는 교사,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자신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기도 하였다.

물론 순수한 산업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스와데시 운동은 눈에 띠는 성공이나 경제적 구조의 획기적 변혁의 가능성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영국인 제조업자와 상인들에게 타격을 주고 토착산업을 장려하겠다는 표현에서 스와데시 운동은 자주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스와데시 운동에서 중간계급의 활동이 인도가 ‘부르조아 민주주의’ 노선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도민족주의는 대부르조아지의 이익만을 반영하고, 스와데시 운동은 도시의 소부르조아지의 활동을 반영했을 뿐이라고 규정해버리는 데는 무리가 있다. 스와데시 운동을 도시 소부르조아 성격으로 규정할 경우 토지와 관련된 자민다르 및 중간 규모의 토지소유자들의 애국적 역할은 너무 희미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스와데시 운동은 인도의 새로운 민족주의 세력인 과격파와 폭력파가 출현하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국민회의 안에서 과격파라는 새로운 집단의 실체가 분명히 나타난 것은 스와데시 운동이 계기가 되었으며, 지하에서 외롭게 활동하면서 영국인 지배자들을 무차별 살해하겠다고 다짐했던 폭력파가 출현한 것도 이때의 일이었다. 물론 폭력파의 출현에는 국내외의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폭력파의 활동무대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벵골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스와데시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폭력파의 활동이 1907년부터 불과 수 년동안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점을 고려하면 스와데시 운동의 또 다른 양상이라기 보다는 벵골분할조치의 시행에 따른 좌절감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스와데시 운동은 특정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분기한 애국운동이므로 한시적일 수밖에 없었다. 스와데시 운동은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지휘할 중앙조직체도 부재한 상태에

서 미지않아 쇠퇴할 수밖에 없었고 뱅골분할조치가 폐기될 경우에 계속 추진해 나갈 명분도 약하게 되었다. 그러나 스와데시 운동은 잠시 쇠퇴했을 뿐 종말을 고한 것은 아니었고 미구에 마하트마 간디가 이를 부흥하게 되었다. 따라서 스와데시 운동은 간디의 범국민적인 대규모 사티야그라하 운동의 예행연습과 같은 것이었다.

〈참 고 문 헌〉

曹吉泰

- 1975 「印度國民運動에 있어서의 모슬렘의 반응」, 『亞細亞研究』, 54호, 아세아문제연구소.
- 1993 『印度民族主義運動史』, 신서원.
- 1994 『인도사』, 민음사.
- Antonova K. & Kotovsky G.
1992 *A History of India*, Moscow.
- Argov D.
1977 *Moderates and Extremists in the Indian Nationalist Movement*, Bombay.
- Aziz K.K.
1987 *The Making of Pakistan; A Study in Nationalism*, London.
- Banerjee A.C. (ed.)
1987 *Indian Constitutional Documents*, Vol. II. Calcutta.
- Banerjea S.
1925 *A Nation in Making*, Oxford University Press.
- Chandra B.
1989 *The Rise and Growth of Economic Nationalism in India*, New Delhi.
- Chakrabarti H.
1992 *Political Protest in Bengal; Boycott and Terrorism 1905-1918*, Calcutta.
- Deuskar S.G.
1907 *Desher Katha (Story of the Country)*, Calcutta.
- Dutt R.
1967 *The Economic History of India under the Victorian Rule*, Vol. II. Delhi.
- Fraser L.
1911 *India under Curzon and After*, London.

Ghose A.

1987 *Doctrine of Passive Resistance*, Pondicherry.

Ghose S.

1980 *The Renaissance to Militant Nationalism in India*, Calcutta.

Ghosh P.C.

1985 *The Development of the Indian National Congress*, Calcutta.

Gopal S.

1990 *The British Policy in India 1858-1905*,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rdon L.A.

1994 *Bengal: The Swadeshi Movement 1876-1940*, New Delhi.

Griffiths P.

1982 *The British Impact on India*, London.

Johnson G.

1973 "Partition, Agitation and Congress; Bengal 1904 to 1908", *Modern Asian Studies*, 7. 3, Cambridge University.

Majumdar A.C.

1974 *Indian National Evolution*, Delhi.

Majumdar R.C.

1988 *History of the Freedom Movement in India*, Vol. II. Calcutta.

Misra B.B.

1985 *The Indian Middle Classes'; Their Growth in Modern Times*, Oxford University Press.

Mukherjee H. & Mukherjee U.

1986 *India's Fight for Freedom or the Swadeshi Movement*, Calcutta,

Natesan Co. (ed.)

1920 *Speeches of Gopal Krishna Gokhale*, Madras.

Philips C. (ed.)

1967 *Select Documents on the History of India and Pakistan*, Vol. IV. *The Evolution of India and Pakistan 1858-1947*, Oxford University Press.

Sarkar S.

1994 *The Swadeshi Movement in Bengal*, New Delhi.

Singh G.

1993. *Landmarks in Indian Constitutional and National Development*, Delhi.

Zakaria R.

1991. *Rise of Muslims in Indian Politics*, Bombay.

A Study of the Swadeshi Movement in India

Kil-Tae, Cho

This paper traces the British imperialistic policy in Bengal, India, and the growth of the Swadeshi Movement from 1903 to 1908. The Swadeshi literally meant "of one's own country", or "manufactured in one's own country" was to be certain to associate with the Boycott Movement which aimed at to abstain from the purchase of British manufactures. Swadeshi was positive in character while Boycott was negative. But the two terms were complementary. Swadeshi would have remained an impotent and aesthetic idea without boycott of foreign goods.

The Swadeshi Movement was begun as an expression against the partition of Bengal planed by the Viceroy, Lord Curzon who was an ardent admirer of the doctrine of efficiency. The government regarded the size of the province to be too unwieldy to be properly administered by a single person, the lieutenant governor of Bengal.

Many of the leaders of Indian people looked upon the partition as an imperialistic scheme on the part of the Viceroy government to isolate the Muslims from Bengal and to keep the homogeneous Bengali speaking community under two divided administration. The Indian National Congress and other nationalist bodies interpreted unfavorably the partition as tactics related to the weakening of national unity.

When the partition scheme came to be known to the public of Bengal, the Congress leaders and inhabitants of the province rised to make resistance against the 'divide and rule' policy of the government. All sections of the Indian community have been moved by a common impulse without distinction of caste or creed and acted together in offering resistance to a common wrong. Even though it was against the superior cotton goods of Manchester that the Swadeshi and Boycott

movements were mainly directed, what is worth special attention was the fact that the Bhadralok class was active participants in the anti-partition movement.

The Swadeshi movement constituted a landmark in the history of Indian nationalist movement. It was the Swadeshi movement that planted the seeds of national self-consciousness in the minds of the great masses. The Swadeshi movement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nerveless attitude of the Congress towards the government and opened the way to the vigorous nationalist movement. While the Congress brought the educated middle classes on the same platform, it was the Swadeshism that rallied the classes and the masses together on the open forum. So the Swadeshi movement may be said as a rehearsal of the future massive Satyagraha Movement which Mahatma Gandhi will take the lea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조길태, 아주대 사학과 교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 산5 아주대 사학과

Tel : 0331-219-2849(O), 406-1878(H)